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와 비보호시간대의 TV 선정성 수준 비교 : 등장인물의 인구학적, 사회관계적, 언어적 특성을 중심으로*

하승태** · 이정교***

초 록

본 연구는 지상파 TV프로그램에서 묘사되는 선정성의 빈도 및 등장인물의 인구학적, 사회관계적 특성과 언어적 표현 등을 중심으로 주요 지상파 4개 채널로부터 2007년 한 해 동안 표집된 프로그램들을 내용분석하였다.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와 비보호시간대 간의 미디어 선정성의 수준은 크게 빈도 차원과 앞서 언급한 선정성의 맥락 차원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냈다. 이는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라는 법적 규제 장치가 프로그램의 편성과 제작 과정에 있어서 일정부분 통제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러한 결과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의 확대 시행에 대한 주장을 뒷받침하는 실증적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주제어 : 청소년 시청보호시간대, 미디어 선정성, 선정성의 맥락

* 본 연구는 2009년도 경희대학교 연구박사지원에 의한 결과임(KHU-20090498). 표집된 프로그램 목록에 대한 정보는 아래의 메일주소로 요구할 경우 제공 가능함.

** 경희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연구교수, sthaha@naver.com

*** 경희대학교 언론정보학부 교수, 교신저자, jglee@khu.ac.kr

I. 서론

최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접수된 방송프로그램의 문제점과 관련된 민원 건수를 분석해보면, 선정·폭력성 등의 소재 및 표현기법 관련 민원(13.3%)이 콘텐츠의 윤리적 수준에 대한 문제제기(18.3%)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매체별로는 지상파방송에 대한 민원이 전체 매체의 약 66%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방송통신심의위원회, 2009년 2월 시청자 동향분석). 비단 이러한 통계적 수치가 아니더라도 국내 방송프로그램의 선정성 수위가 최근 들어 매우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음이 여러 연구를 통해 제시되고 있는 실정이다(박은희, 황성연, 심미선, 2008; 한국방송영상산업진흥원, 2000).

특히, 2001년 이후 지속적으로 시행되어온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와 방송프로그램 등급제와 같은 어린이 및 청소년 보호정책들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방송미디어의 선정적 표현에 대한 수용자의 불만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몇몇 연구들은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와 프로그램 등급제의 실질적 효율성에 대한 상당한 의문을 표출하고 있는 실정이다(강남준, 2001; 강태완, 2004; 김동윤, 김주환, 2006). 즉, 유해한 방송콘텐츠로부터 청소년들을 보호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제도적 안전장치라고 할 수 있는 보호시간대와 등급제의 실효성이 청소년층의 주시청시간대의 변화로 인해 그 의미가 퇴색하고 있다는 주장 그것이다(박은희 외, 2008; YMCA, 2008). 청소년의 주요 지상파TV 시청률은 청소년들의 학업시간대와 연계되어 야간 자율학습이나 방과 후의 사교육이 마무리되는 시간인 밤 10시 이후까지 최고조에 달하고 있으며, 특히 고등학생의 경우 대략 자정까지 정점을 이루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박웅진, 2008). 이러한 결과는 박은희 등(2008)이 제시하고 있는 TNS시청률 조사 결과와 거의 일치하고 있는 것이다. 청소년의 TV시청시간대의 이러한 심야시간으로의 확대는 청소년의 생활주기 패턴과 밀접히 관련되어있으며, 이는 저녁 10시까지로 한정되어있는 현행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의 실질적인 효용가치에 의문을 제기하는 분석결과라 할 수 있다.

한편, 이러한 논의들은 결국, 미디어의 폭력성과 더불어 중대한 사회적 우려를 자아내는 또 하나의 부정적 측면인 선정성이 청소년 수용자들에게 가져올 수 있는 부정적 영향력에 근거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미디어의 선정적 콘텐츠는 장기적으로 수

용자의 성과 관련된 심리적, 생리적, 그리고 행위적 기능 뿐 만 아니라 사회적 가치 관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이 최근의 연구 결과들에 의해 밝혀지고 있다. 나아가, 성적 정체성의 형성기에 있는 청소년들에게 있어서 TV콘텐츠에서 묘사되고 있는 선정적 장면들은 매우 중요한 사회적 함의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TV콘텐츠의 선정성을 시청보호시간대와 연계하여 분석하는 것은 유해 콘텐츠로부터 청소년들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의 효용성을 검증하기 위한 중요한 기초자료가 될 것으로 판단된다.

최근의 TV프로그램 선정성과 이의 유해성 차단을 위한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를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는 논란을 중심으로, 본 연구에서는 첫째,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와 비보호시간대에 방영되고 있는 TV프로그램의 선정성 분석을 통하여 해당 시간대별로 묘사된 선정성의 계량적 비교분석을 시도할 것이다. 둘째, 기존 연구들의 단순한 양적 측정에서 더 나아가 선정성이 표현되고 있는 다양한 맥락적 차원에 대한 분석을 수행할 것이다. 이는 현재 묘사되고 있는 TV프로그램의 선정성이 가져올 수 있는 영향력의 주요 조건변인들을 살펴보는 보다 입체적인 선정성분석이 될 것이다. 끝으로, 이러한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현재 시행되고 있는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에 대한 현실적 효용성을 점검하고 이에 대한 발전적 제언을 논하고자 한다.

II. 문헌연구

1. 미디어 선정성 연구의 중요성 및 연구 동향

우선, 미디어 선정성의 다양한 영향에 관한 국내외 연구경향분석을 통해 선정성연구의 중요성을 파악하는 것은 청소년보호시간대와 같은 제도적 규제 장치의 필요성과 이의 수정 및 보완에 대한 후속적인 논의를 위한 의미 있는 작업이 될 것이다. 미디어에 나타난 선정적 표현들은 수용자의 정서, 태도 및 행위에 있어서 다양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예컨대, 성의식과 관련된 태도형성에 있어서 선정적 미디어물에 노출된 수용자의 경우 성(性)과 사랑은 별개의 것으로 성은 쾌락을 위한

것이라는 도구적 성의식을 갖게 될 뿐만 아니라(김은경, 2000), 일반적인 성과 함께 이성에 대해서도 적대감을 갖게 된다는 것이다(Zillmann & Bryant, 1989). 이런 연구들은 선정물에 대한 노출이 단순한 성적 흥분이나 호기심 증대(이소희, 성윤숙, 2001)에서 더 나아가, 성 혹은 이성에 대한 사고방식에도 영향을 준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다. 특히, 청소년의 선정적 미디어 콘텐츠에 대한 노출은 순결의식을 저해하고(이세용, 2000), 성 경험의 시기를 앞당기는 주요 요인이 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Collins et al., 2004). 이는 청소년들의 성과 관련된 행위에도 선정적 미디어 콘텐츠가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의미한다. 나아가 선정적 미디어 노출은 성적 접촉 빈도의 증가를 가져올 뿐만 아니라(Brown & Newcomer, 1991), 여러 가지 일탈 행동 및 성 폭력이나 강간과 같은 범죄 행위와도 유의미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관찰되고 있다(이성식, 2004; Allen et al., 1996; Klein et al., 1993). 또한 성 경험이 많은 청소년의 경우 우울증에 걸리거나 자살을 시도할 가능성이 높다는 연구 결과도 보고된 바 있어(Hallfors et al., 2004; Kosunen et al., 2003), 미디어 선정성이 가져올 수 있는 파급 효과는 사회전반에 걸쳐 상당히 포괄적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다.

더욱 중요한 문제는 미디어의 선정적 콘텐츠가 성(性)과 관련된 단순한 행위의 학습과 유발에 그치지 않고 사회적 차원에서 여성에 대한 그릇되거나 부정적 인식을 심어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예컨대, 남성우월 혹은 여성비하의 가치관을 팽배시키는 이념적 도구로 사용될 수 있다는 점이다(Malamuth, 1997). 페미니스트 이론가들은 선정적 미디어물에서 묘사되는 여성비하, 남성에 대한 복종, 그리고 여성에 대한 폭력의 정당화 등의 위험성에 대해 경고하며 이러한 선정적 미디어 콘텐츠에 대한 노출은 장기적으로 성(性)에 대한 잘못된 사회적 담론을 형성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Mackinnon, 2005; Malamuth & Billings, 1986).

또 하나 주목할 점은 많은 선정적 미디어 콘텐츠가 폭력과 연관되어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선정적 폭력물들은 특히 남성 수용자들에게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여성에 대한 폭력에 관대함을 보이거나(Linz et al., 1984; Allen et al., 1995), 여성들이 강간을 원하고 있다는 강간 신화에 대한 신념이 강화되고(Malamuth & Billings, 1986, 이석재·최상진, 2001), 여성 처벌의 수단으로서 가혹적인 도구들을 사용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이다(Malamuth, 1989). 반면 여성들에게는 자기효능감이나 자기존중감의 상실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다(Escobar-Chaves et al., 2005).

미국의 심리학자인 반두라(Bandura, 1965)는 공격성에 대한 사회학습이론(Social Learning Theory)에서 성적 충동은 공격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공격적인 감정 상태에서 선정적 미디어 콘텐츠에 노출되면 그 공격성이 더욱 강화된다고 주장한다. 버코위츠(Berkowitz, 1962)는 과도한 선정물예의 노출은 또 다른 선정물을 갈구하게 되고 수용자의 공격성을 더욱 촉진시킨다는 선정물의 사회적 폐해를 지적했다. 이런 주장들은 실증적 연구를 통해서도 입증되었는데, 질만(Zillmann & Bryant, 1982)은 그의 실험 연구에서 미디어 선정물에 많이 노출될수록 강간의 윤리적 문제를 경시하는 경향을 발견했다.

결국, 선정적 미디어 콘텐츠에 대한 노출은 심각한 사회적 병리 현상을 초래할 수 있으며 청소년의 정신건강을 해치는 심각한 사회문제로 발전할 수 있다. 따라서 미디어에서 묘사되고 있는 선정성은 체계적이고 심도 있는 과학적 조사가 필요한 영역이다.

2. 미디어 선정성의 효과에 대한 이론적 배경

1) 배양이론(Cultivation Theory)

배양이론은 미디어의 선정성 효과를 설명하는 중요한 이론 중 하나이기도 하다. 배양이론에 의하면 매스미디어는 사회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이야기꾼(storyteller)으로서 신화와 이념, 그리고 사회체제를 정의하고 합리화하는 정보를 꾸준히 수용자에게 전달한다. 그러나 이러한 일종의 사회화 과정에서 나타나는 부작용 또한 심각한데, 예컨대 뮤직비디오에서 묘사되어지는 성(gender)에 대한 편향된 이미지나 선정성은 혼외성관계와 성폭력에 대한 용인으로 이어지는 경향이 있으며(Kalof, 1999), 텔레비전 과다 시청자의 경우 육체적 순결을 지키는 것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가지게 되기도 한다(Courtright & Baran, 1980). 또한 선정적 미디어 콘텐츠에 장기적으로 노출된 수용자의 경우 비정상적 성행위가 보편화되었다고 인식하는 성향이 높고 소극적인 성생활을 질병으로 취급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Zillmann, 2000).

2) 사회학습이론(Social Learning Theory)

인지적 사회학습이론은 미디어 등장인물들의 행위가 처벌되지 않거나 혹은 보상을 받게 되면 수용자들이 그들의 행위를 모방하게 된다고 예측한다. 선정성과 관련할 때, 매력적인 캐릭터의 성적 행위가 부정적 결과를 가져오지 않는 경우 수용자들은 모델링과 모방을 통해 그 인물의 행위를 아무런 비판 없이 수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추론할 수 있다. 특히 성적 경험이나 지식이 부족한 청소년의 경우 이런 경향이 더욱 심각할 수 있다. 실례로 차일더스(Childers, 1990)는 청소년들의 콘돔 사용이 드라마에 대한 노출 정도와 부정적 관계에 있는 것을 발견했다. 이러한 연구 결과들은 미디어를 통한 학습 자체를 문제 삼는 것이 아니라, 미디어 산업의 상업화와 더불어 점점 더해가고 있는 미디어의 선정성이 야기할 수 있는 부정적 영향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주는 것이다.

3) 미디어 실습모델(Media Practice Model)

미디어 실습모델은 정체성의 형성 과정과 미디어 이용의 관계를 설명하기 위한 모델로서, 특히 청소년기의 정체성 확립과 미디어의 선택, 미디어 이용 사이의 상관관계를 규명하기 위한 이론이다(Steele & Brown, 1995). 이 모델에 의하면 청소년들은 미래에 되고자 하는 이상적인 자기상에 기초하여 미디어를 선택하고 선택된 미디어와 상호작용을 통해 자신의 정체성을 형성해 나간다는 것이다. 따라서 미디어 속에 등장하는 '우상'들이 보여주는 선정적 행위들을 학습하고 이를 현실에서 '실습'함으로써 자신의 성적 정체성(sexual identity)을 확립하게 되고 나아가 미래의 자아상을 형성해 가게 된다. 미디어 실습모델은 선정적 미디어물이, 특히 정체성이 확립되지 않은 청소년들에게 미칠 수 있는 영향의 중요성을 설명하는 이론으로, 청소년들이 미디어로부터 정체성 형성 및 삶의 '실습'과 관련된 중요한 정보를 얻는다는 점을 부각시키고 있다(Hoff et al., 2003).

3.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와 관련된 논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선정적 미디어 콘텐츠의 영향들은 특히, 성적인 정체성의 형성기를 경험하고 있는 청소년 수용자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끼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미디어 선정성이 청소년에게 미치는 이러한 부정적 영향에 대한 인식과 우려는 사실 국내의 경우 비교적 최근에 들어서야 중요한 사회적 이슈로 주목받고 있다(강남준, 2001). 90년대 후반 들어 본격적으로 쟁점화된 미디어 선정성 이슈는 1997년 3월 통합방송법 제정에 의거한 청소년보호법시행령을 통해 청소년들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규제정책으로 결실을 맺게 된다. 2000년 3월 개정된 청소년보호법 제18조에 따르면 “청소년유해매체물을 방송하여서는 아니 될 방송시간(이하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라 한다)은 평일의 경우에는 오후 1시부터 오후 10시까지로” 규정되어 있으며, 이는 프로그램등급제와 함께 미디어 선정성의 부정적 영향으로부터 청소년들을 보호하기 위한 유일한 제도적 장치로서 현재까지 시행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적 규제 장치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 역시 최근 들어 빈번히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강태완, 2004; 김동윤·김주환, 2006; 박은희 외, 2008). 무엇보다, 방송통신환경의 급격한 변화와 청소년들의 생활패턴 변화는 이들의 TV시청행태에 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는 것이다. 즉, 어린이와 청소년들의 주요 TV시청시간이 과거와는 달리 청소년보호시간대의 범위를 현격히 벗어나고 있다는 주장이 그것이다. 2006년 기준으로 청소년들의 주 평균 TV이용시간은 15.9시간으로 인터넷 이용시간인 13.7시간보다 2시간 이상 많은 수치로 여전히 TV가 청소년들의 가장 긴 매체이용시간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박웅진, 2008). 특히, 평일 주시청시간의 경우 청소년보호시간대인 오후10시를 넘긴 자정까지로 확대되고 있는 실정이며 이러한 현상은 주말에 더욱 심화되고 있는 양상이다. 이러한 생활주기의 변화에 따른 청소년 TV시청률의 시간대별 변화 추이는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의 수정내지는 확대를 위한 주장의 주된 근거가 되고 있다. 한편에서는 단순한 보호시간대의 시정에 그치기보다는 청소년을 위한 다양한 교육 및 문화관련 프로그램을 청소년보호시간대에 적극적으로 편성하여 바람직한 청소년층의 미디어 콘텐츠 소비를 유도하자는 주장과 함께 제기되고 있다.

결국, 청소년보호시간대를 둘러싼 다양한 학술적 논의들은 현재 TV에서 표현되고 있는 여러 가지 유해 콘텐츠의 현황에 대한 진단을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즉, 현재의 제도적 장치가 충분한 실효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파악함으로써 이의 수정 혹은 확대를 위한 정책적 방향을 논의해 볼 수 있다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폭력성과 함께 주된 유해 콘텐츠로 지목되고 있는 방송프로그램의 선정성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을 실시함으로써 이러한 논의를 위한 실증적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Ⅲ. 연구 문제 및 방법

1. 연구 문제

우선, 이상에서와 같은 방송 콘텐츠의 선정성에 대한 연구의 중요성, 특히 청소년 수용자와 관련된 미디어 선정성의 부정적 영향들을 배경으로 본 연구는 방송 프로그램에서 표현되고 있는 선정성의 현황을 분석코자한다. 또한 이러한 선정성에 대한 현황 분석을 바탕으로 방송미디어의 선정성과 관련된 최소한의 제도적 안전장치라고 할 수 있는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의 시행이 어떠한 실효적 의미를 가지는지를 논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구체적으로, 전반적인 선정성의 빈도분석과 함께 방송 프로그램의 선정적 표현이 어떠한 성별, 연령별, 인구학적 특성을 지니는지, 등장인물들의 사회적 관계는 어떠한지, 그 언어적 특성은 무엇인지 등에 대한 구체적 분석을 시행할 것이다. 동일한 선정적 표현일지라도 그것이 전달되어지는 맥락에 따라 그 영향력은 매우 달라질 수 있으며, 이러한 맥락은 선정적 표현에 대한 수용자의 인식과 반응에 차별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예컨대, 부부와 같은 사회적으로 합법화된 관계에서 일어나는 성행위에 대한 표현과 강간이나 범죄 같은 상황에서의 성행위 장면에 대한 수용자의 성적 각성의 정도는 분명히 다르다는 것이다(Baxter, Barbaree, & Marshall, 1986; Hall, 1989; Quinsey, Chaplin, & Upfold, 1984). 뿐만 아니라 시각적 표현과 함께 언어적 선정성 역시 분명한 선정성으로 인식될 필요가 있다. 선정적 언어는 선정적 상상을 유발시킴으로써 강력한 성적 각성을 일으키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며(Reichert, 2002; Richmond & Hartman, 1982), 최근 이러한 언어적 측면에 대한 관심 또한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Farrar et al., 2003; Taylor, 2005). 따라서 본 연

구에서는 TV프로그램에 나타난 선정적 표현의 빈도와 함께 선정성의 맥락적 특성과 관련하여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와 비보호시간대별 차이점을 분석할 것이다. 이러한 연구목적에 따른 주요 연구문제들은 다음과 같다.

- 연구문제1:** 지상파 텔레비전 프로그램에 나타난 선정적 장면의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와 비보호시간대별 빈도와 비중은 어떠한가?
- 연구문제2:** 지상파 텔레비전 프로그램의 선정적 장면에서 묘사되는 행위자들의 인구학적 특성(성별, 연령)은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와 비보호시간대별로 어떠한가?
- 연구문제3:** 지상파 텔레비전 프로그램의 선정적 장면에서 묘사되는 행위자들의 사회관계적 특성은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와 비보호시간대별로 어떠한가?
- 연구문제4:** 지상파 텔레비전 프로그램의 선정적 장면에서 나타나는 언어적 특성은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와 비보호시간대별로 어떠한가?

2. 연구 방법

1) 선정성의 정의

본 연구에서의 선정성의 개념은 일반적인 감정이나, 흥미, 분노의 유발(sensationalism)과 관련된 것이 아니라 보다 직접적인 성적 표현(sexuality)을 가리키는 것으로, 성적인 상상을 불러일으키는 동작이나 행위, 특정 신체의 노출, 성적 신체접촉, 혹은 성적인 암시나 표현을 담고 있는 언어 등을 일컫는다. 보다 구체적으로, 첫째, 선정적 동작·행위의 경우 성적 상상을 유발하거나 성적암시가 담긴 동작이나 행위로써 성행위를 포함한 자극적인 춤, 성행위를 암시하는 동작 등이 이에 해당한다. 둘째, 선정적 신체노출은 전라 및 반라를 포함하는 것으로 심한 노출로 인한 특정 신체부위의 강조 등을 말한다. 셋째, 선정적 신체접촉은 성적 행위를 전제로 하는 진한 애무나 키스 등의 구체적인 성적 접촉과 함께 가벼운 스킨십을 모두 포함한다. 끝으로, 선정적 언어란 특정 신체부위나 성행위와 관련된 표현이나 성적 농담, 음담패설 등 성적 수치심이나 음란함을 유발할 수 있는 언어적 표현을 일컫는다.

2) 선정성의 분석단위

TV화면에서 묘사되는 선정성의 분석은 카메라에 의한 장면전환 시점을 기준으로 하는 장면(scene)단위에서 실시되었다. 따라서 같은 등장인물에 의한 선정적 행위나 동작일지라도 카메라에 의한 장면전환이 이루어졌을 경우 이는 하나의 독립적인 선정적 표현으로 간주되었다.

3) 자료 수집 및 분석

지상파 방송프로그램을 대표하는 타당성 있는 분석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 본 연구는 주요 지상파방송 4개 채널(KBS1, KBS2, MBC, SBS)을 분석대상으로 삼았다. 2007년 1년간의 방송프로그램을 모집단으로, 1년을 4개 분기(3개월씩)로 나누어 각 분기당 1주씩을 표집 했다. 최근 1년을 표집기간으로 정한 이유는, 우선 TV 선정성 분석의 최신 업데이트의 의미가 있으며, 또한 방송프로그램의 특성상 계절적 요인, 즉 분기별 프로그램 재편성의 영향을 통제하기 위해서는 짧은 기간의 편의표본보다는 이처럼 장기간의 프로그램 표집이 타당하기 때문이다. 구체적인 표집방법은 복합주간방식을 이용했는데, 이러한 복합주간표집방식은 특히, 방송프로그램의 표본추출에 있어서 잠재적인 주간변동요인을 효율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추출기법이라 할 수 있다(Riffe, Aust, and Lacy 1993; Riffe, Lacy, Nagovan, and Burkum 1996). 이에 따라, 채널 별로 4주, 총 16주 분량의 방송프로그램이 표집 되었다. 표집시간은 청소년보호시간대와 비보호시간대별 비교분석의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청소년보호시간대의 끝(밤 10시)을 기준으로 전후 3시간 씩, 즉 저녁7시부터 익일 오전 1시 까지 총6시간 동안이었다. 표집결과, 추출된 프로그램의 수와 광고시간을 제외한 순수 프로그램 방영시간은 16주 동안 4개 채널에서 총 941개 프로그램의 약 596시간으로 나타났다.

프로그램의 선정성분석은 방송사에서 제공하는 인터넷 다시보기 서비스를 통해 이루어졌으며, 모두 6명의 커뮤니케이션 전공 대학원생들에 의해 선정적 장면 추출작업이 실시되었다. 이를 바탕으로 3명의 코더들이 독립적으로 구체적인 선정적 행위자들의 성별, 연령, 사회적 관계, 언어적 특성 등 선정성의 맥락적 요인들을 분석하였다. 이들은 본격적인 코딩에 앞서 2차례에 걸친 코딩북 및 코딩절차에 관한 교육을 받은바 있다.

4) 구체적인 분석 유목 및 코더 간 신뢰도 검증

분석유목을 보면, 우선 선정적 행위자의 성별의 경우 남성 및 여성의 단독, 남성과 여성이 함께 등장, 남성 및 여성의 복수, 트랜스젠더나 남녀구별이 불분명한 경우인 기타 등으로 분류하였다. 행위자의 연령은 20세 이하와 60세 이상을 제외한 중간 연령 스펙트럼은 10세 단위로 분석하였다. 특히, 드라마, 영화 혹은 코미디와 같은 장르에서의 연령분석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분장이나 극중 설정으로 인해 혼돈이 예상되거나 본 연구에서는 연령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는 경우 프로그램 내에서 설정되어진 연령대를 기준으로 분석하였다. 예컨대, 실제 인물의 나이가 20대인 등장인물이 노인역할을 할 경우 노인의 연령대를 행위자의 연령으로 판단하였다. 한편, 행위자 간의 사회적 관계의 경우, 단독 등장, 부부관계, 혼전 및 불륜을 포함하는 부부이외의 애정관계, 매춘 등의 거래 및 대가성 관계, 주변인물 혹은 낯선 이들 간의 관계, 기타 사회적 관계의 파악이 어려운 경우 등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끝으로 선정적 언어의 표현에 대해서는 선정적 언어의 미사용, 성적 신체부위와 관련된 언급, 성행위에 대한 언급, 성적 농담을 포함하는 음담패설, 앞서 언급한 언어적 표현이 복수로 묘사되는 경우, 그리고 이상에 포함되지 않는 여타 언어적 표현으로 분류하였다.

이러한 구체적인 하위유목에 대한 내용분석의 신뢰도를 확보하기 위해 해당 코더들을 대상으로 7개의 주요 장르별 샘플 프로그램을 바탕으로 코더간 신뢰도 검증을 실시하였다. 검증계수로는 Cohen's kappa이용되었으며, 구체적인 항목별 코더간 신뢰도 계수는 다음과 같다. 선정적 행위자의 성별은 .907, 연령은 .754, 사회적 관계는 .852, 선정적 언어는 .904로 나타나 전반적으로 코딩의 신뢰도는 매우 만족스러운 것으로 분석되었다.

IV. 결 과

1. 선정성의 빈도 및 비중 분석

<표 1> 지상파 TV프로그램에 나타난 선정성 빈도 및 비중의 시간대별 분석

	방송 시간	선정적 장면수	선정적 장면 총 지속시간	장면당 평균 지속시간	시간당 장면수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	오후7-8시	6	11초	1.8초	0.06
	오후8-9시	37	3분 11초	5.2초	0.37
비보호시간대	오후9-10시	79	5분 8초	3.9초	0.80
	오후10-11시	72	7분 21초	6.1초	0.72
	오후11-자정	274	23분 23초	5.1초	2.76
	자정-오전1시	282	28분 25초	6.1초	2.84
계/평균		750	1시간 5분 59초	5.3초	

먼저, 지상파 TV프로그램에 나타난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와 비보호시간대별 선정적 장면의 빈도와 실질적인 비중을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비보호시간대에서 현격히 높은 선정성 빈도를 보이고 있는 것을 나타냈다(<표 1>).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의 경우 선정적 장면의 빈도수가 122회에 그치고 있으나 비보호시간대에는 무려 628회로 보호시간대에 비해 무려 5배 이상 높은 선정성 빈도를 보였다. 추출된 선정적 장면의 상대적 지속시간이 다르다는 점에서 선정성의 상대적 비중을 알 수 있는 선정적 장면의 지속시간을 계산해보면 청소년보호시간대에서는 모두 8분 30초 분량의 선정성이 노출된 반면, 비보호시간대에서는 59분 9초 동안 선정적 장면이 지속된 것으로 관찰되었다. 즉, 실질적인 선정성의 비중으로 보면 비보호시간대에서 보호시간대에 비해 7배 정도 높은 선정성을 보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보호시간대에 비해 비보호시간대에서 훨씬 높은 선정성을 보이고 있지만, 선정성 증가의 경향은 매 시간대별로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오후 7시 대에서 6건에 그쳤던 선정적 장면은 오후 9시 대에서 79건으로 증가하다가 비보호시간대, 특히 오후 11시와 12시대에 무려 274

건과 282건으로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이러한 시간대별 증가는 단순히 선정적 장면의 빈도에 그치지 않고 장면의 지속시간에서도 마찬가지로 경향을 보였다. 오후 7시 대의 평균 장면당 지속시간이 1.8초였던 것이 꾸준히 증가해 비보호시간대에서는 평균 지속시간이 5.8초로 나타났다. 이는 비보호시간대로 갈수록 전반적인 선정적 묘사의 횟수가 증가했을 뿐만 아니라 장면 자체의 길이도 늘어난 것을 말해준다.

이러한 결과는 박은희 외(2008)의 최근 연구결과와 상당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들에 따르면, 2006년 4월 13일부터 15일 까지 3일 동안 방영된 지상파 TV의 모든 프로그램에 나타난 선정적 장면을 분석한 결과 보호시간대에서 시간당 평균 0.765건, 비보호시간대에서 평균 1.270건의 선정적 장면 빈도가 관찰되었다. 이는 본 연구결과에서 나타난 보호시간대(시간당 0.41건)와 비보호시간대(시간당 2.11건) 간의 차이에 비해 상대적으로 훨씬 적은 시간대별 차이가 나타났음을 말해준다. 이러한 상대적 차이의 발생은 주로 표집의 범위와 방법에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선행연구의 경우 요일별 그리고 계절별 변동요인이 고려되지 않은 편의표본에 바탕으로 두고 있으며, 표집시간도 주시청시간대가 아닌 해당일시의 방송분량 전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결국, 보호시간대의 프로그램에서는 비보호시간대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선정성이 묘사되고 있으며, 1년간의 대표성 있는 표본을 바탕으로 분석했을 때 그러한 차이는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결과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의 제도적 취지가 적어도 선정성 차원에서의 프로그램의 제작과 편성과정에 있어서 어느 정도 효율적으로 반영되고 있다는 것을 시사해 주는 것이다.

2. 등장인물들의 성별 분석

<표 2> 지상파 TV프로그램의 선정적 장면에 나타난 행위자들의 성별 특성

	행위자의 성별						계(n)
	남성	여성	남성+여성	남성복수	여성복수	기타/불분명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 (오후7-10시)%	16.4	22.1	31.2	0.8	9.0	20.5	122
비보호시간대 (오후10-익일 오전1시)%	8.1	24.5	51.8	3.7	7.6	4.3	628
계(n)	71	181	363	24	59	52	750

$\chi^2=58.04$, $df=5$, $Sig.=.000$, 2-tailed

한편, 선정적 장면이 묘사되고 있는 구체적인 맥락적 요인들을 살펴보면, 우선 성별분석에서는 보호시간대에서의 남성(16.4%)이 비보호시간대(8.1%)에 비해 훨씬 높은 빈도로 선정적 행위와 관련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표 2>). 반면 남성과 여성이 같이 등장하는 선정적 장면의 경우 비보호시간대(51.8%)에서 보호시간대(31.2%)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이 묘사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비보호시간대에서 남녀 간에 이루어지는 상호적 행위가 보다 자주 묘사되고 있으며, 보호시간대에는 상대적으로 남성 단독에 의한 단순 노출이나 동작이 빈번히 보이고 있음을 암시한다. 일반적으로 등장인물 단독에 의한 선정적 노출이나 동작이 남녀 간에 일어나는 선정성의 표현과 비교해 볼 때 직관적인 측면에서의 선정성의 수위는 낮다고 볼 수 있으나, 이들의 차별적 유해성에 대해서는 후속적인 검증이 요구된다 하겠다. 따라서 이런 결과만으로 보호시간대의 효율성을 논하기에는 무리가 따른다고 볼 수 있다. 성별의 구분이 모호한 경우도 보호시간대에서 훨씬 자주 노출되었으며, 여성단독에 의한 선정성은 별다른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3. 등장인물들의 연령별 분석

<표 3> 지상파 TV프로그램의 선정적 장면에 나타난 행위자들의 연령별 특성

	행위자의 성별						계(n)
	20세 이하	21-30 세	31-40 세	41-50 세	51-60 세	60세 이상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 (오후7-10시)%	20.5	64.8	4.9	7.5	2.5	0.0	122
비보호시간대 (오후10-익일 오전1시)%	1.3	50.0	44.1	2.1	1.4	1.1	628
계(n)	33	393	283	22	12	7	750

^{a)} $\chi^2=143.42$, $df=5$, $Sig.=.000$, 2-tailed

선정적 행위자들의 연령별 분석은 <표 3>에 나타나 있다.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20.5%)에서는 전반적으로 20세 이하의 비중이 비보호시간대(1.3%)에 비해 현저히 높았으며, 20대에서도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결국, 보호시간대에서는 20대 이하의 비교적 젊은 인물들이 절대적으로 많이 등장하는 반면, 비보호시간대에서는 20대(50.0%)와 30대(44.1%)의 등장인물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보호시간대에서의 30대의 등장은 4.9%에 그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시간대별 프로그램들이 소구하는 목표수용자 층의 차이에 따른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즉, 심야시간대에서의 시청연령의 증가가 TV콘텐츠 내에서의 30대 이상 등장인물에 대한 빈번한 묘사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청소년 수용자의 경우 자신과 유사한 인물들에 대한 모방 및 모델링효과가 크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보호시간대에서 빈번히 노출되고 있는 20세 이하의 등장인물에 대한 선정적 묘사의 경우 조심스런 접근이 요구된다 하겠다. 양시간대를 아울러 50대 이상 연령의 인물들은 극히 미미한 수준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4. 등장인물들의 사회적 관계 분석

<표 4> 지상파 TV프로그램의 선정적 장면에서 나타난 행위자들의 관계적 특성

	행위자의 사회적 관계						계(n)
	단독	부부 관계	부부 외의 애정관계 (혼전/불륜)	거래 관계 (매춘 등)	주변/낯선 관계	기타/불분명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 (오후7-10시)%	54.9	4.1	1.6	0.0	19.7	19.7	122
비보호시간대 (오후10-익일 오전1시)%	32.2	9.6	30.3	1.9	10.0	14.8	628
계(n)	269	65	192	12	87	117	750

^{a)} $\chi^2=60.45$, $df=5$, $Sig.=.000$, 2-tailed

미디어 선정성과 관련된 또 하나의 중요한 맥락인 등장인물 간의 관계적 특성을 살펴보면, 우선 앞선 성별분석에서와 마찬가지로 보호시간대에서 단독인물에 의한 선정성(54.9%)이 절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유목의 비보호시간대 비중은 32.2%로 분석되었다. 비보호시간대의 주요 특성은 부부관계와 같은 합법적 관계에서의 선정적 장면이 9.6%에 그친 반면, 혼전관계나 불륜관계를 바탕으로 묘사되는 선정성의 경우 30.3%로 보호시간대에 비해 훨씬 높게 나타나고 있는 점이다. 비도덕적인 관계에서 묘사되는 선정성의 상대적 비중이 보호시간대에서 낮다는 점은 고무적이거나, 여전히 보호시간대에서의 낮은 합법적 관계에서의 묘사는 문제점으로 지적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보호시간대에서의 상대적으로 높은 단순 주변인물들이나 낯선 관계를 배경으로 묘사되는 선정적 장면의 경우(19.7%)와 관계묘사가 불분명한 경우(19.7%)는 우려스러운 결과라 볼 수 있다. 보호시간대에서의 해당 비중은 각각 10.0%와 14.8%인 것으로 관찰되었다.

분명, 보호시간대와 비보호시간대에서 묘사되고 있는 선정성을 둘러싼 이러한 맥락적 요소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러한 선정성 표현의 차이가 청소년 수용자에게 미치는 어떤 유해성의 차이로 이어지는 지에 대해서는 추가

적인 연구 작업이 필요하다 하겠다.

5. 선정적 장면에 나타난 언어적 특성 분석

〈표 5〉 지상파 TV프로그램의 선정적 장면에 나타난 언어적 특성

	선정적 언어의 유형						계(n)
	선정적 언어 없음	성적부위 관련 언급	성행위 언급	음담 패설	복합	기타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 (오후7-10시)%	95.1	2.5	0	0	0	2.5	122
비보호시간대 (오후10-익일 오전1시)%	82.8	2.2	8.3	0.5	0.8	5.4	628
계(n)	636	17	52	3	5	37	750

^{a)} $\chi^2=15.30$, $df=5$, $Sig.=.009$, 2-tailed

마지막으로, 선정성 분석의 중요한 한 측면인 언어적 선정성에 대한 분석결과가 〈표 5〉에서 보이고 있다. 전반적으로 선정적 언어의 빈도는 보호시간대(4.9%)와 비보호시간대(17.2%)를 아울러 비교적 낮게 나타나고 있지만, 역시 비보호시간대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보호시간대에서는 대부분 언어적 표현이 성과 관련된 신체적 부위에 대한 언급이 주를 이루었으며, 직접적인 성행위에 대한 언급은 전혀 나타나지 않았다. 반면, 비보호시간대에서는 보다 다양한 언어적 표현들이 발견되었는데 성적 행위에 대한 언급이 8.3%로 가장 높았고 성적 신체부위에 대한 언급은 2.2%로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보호시간대에서 선정적 언어 표현의 빈도가 낮을 뿐만 아니라 그러한 선정적 언어의 순위 또한 상당히 낮은 것으로 관찰된다. 이러한 결과는 역시 청소년 보호시간대라는 제도적 규제가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암시한다 하겠다.

V. 결론 및 논의

1. 분석결과의 요약

우선 전반적인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와 비보호시간대 간의 미디어 선정성의 수준은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하겠다. 첫째, 선정적 장면의 빈도가 그것이다. 시간당 평균 선정적 장면의 표현 횟수는 0.41건의 보호시간대가 2.11건의 비보호시간대에 비해 약 5분의 1 정도의 수준으로 관찰되었다. 시간당 평균 선정적 장면의 지속시간은 보호시간대가 1.7초, 비보호시간대가 12.1초로 나타나 실질적인 선정성의 비중 차이는 더 크게 벌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방송프로그램의 유해 콘텐츠로부터 어린이 및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규제제도로서 시행되고 있는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의 실질적 효용성이 적어도 일정수준 발현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두 번째 차이는 이러한 선정적 장면에서 묘사되는 등장인물들의 인구학적, 사회관계적, 언어적 특성에 있다. 먼저 등장인물의 성별적 특성을 보면, 보호시간대에서는 등장인물의 단독적 노출이나 동작이 많이 묘사되는 반면 비보호시간대에서는 남녀상호간의 선정적 행위에 대한 표현이 두드러진다는 것이다. 선정적 행위자들의 연령별 분석에서는 보호시간대 방영된 프로그램에서는 상대적으로 젊은 20대 혹은 청소년수용자와 유사한 연령대인 20세 이하 인물들에 의한 선정적 표현이 빈번한 반면, 비보호시간대의 프로그램에서는 주로 20대와 30대의 연령층에 속하는 행위자들에 의한 선정적 표현이 주를 이루었다. 양시간대 간의 차이는 등장인물의 사회적 관계에서도 극명하게 드러났는데, 보호시간대에서는 행위자 단독이나 단순한 주변 인물과 낮은 인물 및 관계가 불분명한 인물들 간의 이루어지는 선정적 표현이 다수인 반면, 비보호시간대에서는 부부관계와 같은 합법적인 관계보다 혼전관계나 불륜관계와 같은 사회적으로 바람직하지 못한 것으로 치부되는 인물 간 관계를 바탕으로 많은 선정성이 그려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끝으로 언어적 선정성 분석에서는 비보호시간대에 비해 보호시간대에 현격히 적은 선정성의 언어적 표현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관찰되었다. 또한 선정적 언어의 다양성 역시 비보호시간대에서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의 방송프로그램들이 비보호시간대의 프로그램들에 비해 다양한 선정성의 차원에서 다소 낮은 선정성의 수위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이러한 차이들이 실제 청소년 수용자들에게 어떠한 부정적인 영향의 차이로 이어질지에 대해서는 후속적인 연구들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와 비보호시간대 간의 이러한 맥락적 특성들의 차이는 통계적 유의미성을 확보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결국,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라는 법적 규제장치는 단순한 선정성의 빈도 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다양한 선정성의 맥락 차원에서도 방송프로그램의 편성과 제작에 있어서 부분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2. 분석결과의 정책적 논의

한편, 청소년들의 생활주기 변화에 따른 TV시청시간의 변화로 인해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의 확대 논란은 적어도 본 연구의 분석결과에 의하면 그 논거의 타당성을 충분히 가지고 있다고 판단된다. 보호시간대에 따라 확연한 선정성의 수준과 표현 특성의 차이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이러한 제도적 장치의 수정 및 확대가 현실적으로 방송사의 편성권침해로 이어질 소지가 있다는 점과 단순히 제도적 규제장치만으로 미디어 선정성을 완전하게 해결할 수는 없다는 사실에서 유일한 대안은 아닐 것이다. 무엇보다 그러한 제도적 합리화와 더불어 방송사의 자정노력 및 미디어 수용자의 미디어 콘텐츠 이용에 대한 태도변화가 함께 이루어져야 성공적인 제도적 정착이 가능할 수 있을 것이다. 프로그램제작자 측면에서는 어린이 및 청소년층을 위한 다양한 문화적, 교육적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한 투자와 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며, 보다 적극적으로 청소년 수용자를 보호하려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할 것이다. 반면, 수용자 측에서는 올바른 미디어 이용 습관을 형성하고 비판적으로 미디어 콘텐츠를 수용할 수 있는 안목을 기를 필요가 있을 것이다.

결국, 본 연구의 결과는 청소년들의 TV이용행태의 변화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한 정책적 판단의 근거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적 대응이 궁극적인 실효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프로그램 제작자와 수용자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의 전반적인 미디어 읽기(media literacy)에 대한 통합적인 노력이 절실히 요구된다 하겠다.

3. 연구의 제한점

끝으로 본 연구의 제한점을 간단히 언급하는 것으로 연구결과의 해석에 보다 도움을 주고자 한다. 우선 방법론적인 한계로는 역시 시청률에 근거한 주시청시간대와 심야시간대에 한정된 표본추출로 인해 여타 시간대의 방송프로그램들에 대한 분석자체가 차단됨으로써 연구결과의 해석에 상당한 주의를 요한다 하겠다. 또한 이에 따라, 특정 프로그램 장르에 편중된 프로그램의 표집이 이루어졌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예컨대, 주시청시간대에 다수 편성된 드라마나 쇼프로그램의 과대표집이 우려될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가장 많은 미디어 수용자들에게 노출되는 주요 시간대의 프로그램 분석이라는 점에서 나름대로의 학술적 의미는 충분하다고 판단된다.

또한,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와 비보호시간대에 있어서의 선정성 수준의 차이가 단지 이러한 제도적 장치의 효율성에 기인한 것인지 아니면 비보호시간대가 심야시간대와 겹친다는 점에서 선정성의 수준이 방송시간대와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는지는 또 다른 검증이 필요한 부분이다. 향후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제점 역시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 동안 적지 않은 연구들이 미디어의 유효성과 관련하여 콘텐츠 내에서 묘사되고 있는 폭력성 및 선정성에 대한 연구를 실시한 바 있다. 그러나 다수의 연구가 그 분석범위와 방법에 있어서 매우 제한적이었다고 말할 수 있다. 그 주된 이유는 아마도 이러한 미디어 콘텐츠에 대한 체계적인 내용분석 연구가 많은 시간과 노력을 요구하는 분야이기 때문일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본 연구에서 수행한 1년간의 방대한 양의 방송프로그램에 대한 체계적이고도 세부적인 내용분석은 중요한 정책적 판단의 실증적 기초자료로 충분히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참 고 문 헌

- 강남준(2001). **현행 방송프로그램 등급제의 문제점**. 방송위원회 주최 토론회 발제집. 방송프로그램 등급제 확대실시에 관한 종합토론회.
- 강명현(2005). **방송 프로그램 등급제의 이용 결정요인과 효과에 관한 연구**. 한국언론학보, 제49권 제1호, pp. 300-323.
- 강태완(2004). **방송의 청소년 유해환경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청소년보호위원회.
- 김동윤·김주환(2004). **방송프로그램 등급제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 한국방송학보, 제15권 제2호, pp. 7-41.
- 박용진(2008). **청소년 TV시청행태 및 이용자 특성 분석**. KBI포커스, 08-04 (제46호). 방송영상산업진흥원
- 박은희·황성연·심미선 (2008).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와 프로그램등급제의 실효성에 관한 연구**. 한국방송학보, 제22권 제3호, pp. 129-171
- 한국방송영상산업진흥원 (2000). **텔레비전 프로그램의 선정성 분석: 1997-2000**.
- 김은경(2000). **성의 상업화가 성 의식 및 성 폭력에 미치는 영향**. 한국형사정책 연구원.
- 이석재·최상진 (2001). **강간통념수용도에 따른 성행동, 성폭력 및 성폭행사건 지각. 사회 및 성격**, 제15권 제1호, pp. 97-116.
- 이성식(2004). **청소년 인터넷음란물 접촉이 성폭력에 미치는 영향에서의 조건적 효과**. 청소년학연구, 제11권 제2호, pp. 22-45.
- 이세용(2000). **인터넷과 청소년의 성의식**. 정보와 사회, 제2권, pp. 154-182.
- 이소희, 성윤숙(2001). **인터넷음란정보와 청소년의 사이버일탈**. 청소년복지연구, 제3권 제1호, pp. 111-124.
- Allen, M., Emmers, T., Gebhardt, L., & Giery, M. A. (1996). Exposure to pornography and acceptance of rape myths. *Journal of Communication, Vol. 45 No. 1*, pp. 5-26.
- Bandura, A. (1965). Influence of models' reinforcement contingencies on the acquisition of imitative responses. *Journal of Personality & Social Psychology, Vol. 1 No. 6*, pp. 589-595.
- Baxter, D. J., Barbaree, H. E., & Marshall, W. L. (1986). Sexual responses to

- consenting and forced sex in a large sample of rapists and nonrapists. *Behavior Research and Therapy*, Vol. 24, pp. 513-520.
- Berkowitz, L. (1962). *Aggression: A social psychological analysis*. New York: McGraw-Hill.
- Brown, J. D. & Newcomer, S. F., (1991). Television viewing and adolescents' sexual behavior. *Journal of Homosex*, Vol. 21, pp. 77-91.
- Collins, R. L, Elliott, M. N., Berry, S. H., Kanouse, D. E., Kunkel, D., Hunter, S., B., & Miu, A. (2004). Watching sex on television predicts adolescent initiation of sexual behavior. *Pediatrics*, Vol. 114 No. 3, pp. 280-289.
- Courtwright, J., & Baran, S. (1980). The acquisition of sexual information by young people. *Journalism Quarterly*, Vol. 57, pp. 107-114.
- Escobar-Chaves, S. L., Tortolero, S. R., Markham, C. M., Low, B. J., Eitel, P., & Thickstun, P. (2005). Impact of the media on adolescent sexual attitudes and behaviors. *Pediatrics*. Vol. 116 No. 1, pp. 303-326.
- Farrar, K., Kunkel, D., Biely, E., Eyal, K. & Donnerstein, E. (2003). Sexual messages during prime-time programming. *Sexuality & Culture*, Vol. 7, pp. 7-37.
- Hall, G. C. (1989). Self-reported hostility as a function of offense characteristics and response style in a sexual offender population.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Vol. 57, pp. 306-308.
- Hallfors, D. D., Waller, M. W., Ford, C. A., Halpern, C. T., Brodish, P. H., & Iritani, B. (2004). Adolescent depression and suicide risk: association with sex and drug behavior. *American Journal of Preventive Medicine*, Vol. 27, pp. 224-230.
- Hoff, T., Greene, L., & Davis, J. (2003). *National survey of adolescents and young adults: Sexual health knowledge, attitudes and experiences*. Kaiser Family Foundation.
- Kalof, L. (1999). The effects of gender and music video imagery on sexual attitudes. *The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Vol. 139, pp. 378-386.
- Klein, J. D., Brown, J. D., Childers, K. W., Oliveri, J., Porter, C., & Dykers, C. (1993). Adolescents' risky behavior and mass media use. *Pediatrics*, Vol. 92, pp. 24-31.

- Kosunen, E., Kaltiala-Heino, R., Rimpela, M., & Laippala, P. (2003). Risk-taking sexual behaviour and self-reported depression in middle adolescence: A school-based survey. *Child: Care, Health and Development*, Vol. 29, pp. 337-344.
- Linz, D., Donnerstein, E., & Penrod, S. (1984). The effects of multiple exposure to filmed violence against women. *Journal of Communication*, Vol. 34, pp. 130-147.
- MacKinnon, C. A. (2005). Pornography as trafficking. *Michigan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Vol. 26 No. 4, pp. 993-1012.
- Malamuth, N. M. (1997). Rape fantasies as a function of exposure to violent sexual stimuli. *Archives of Sexual Behavior*, Vol. 10, pp. 33-47.
- Malamuth, N. M. (1989). Sexually violent media, thought patterns, and antisocial behaviour. In G. Comstock (Ed.), *Public communication and behaviour*, Vol. 2 (pp.159-204). San Diego, CA: Academic Press.
- Malamuth, N. M., & Billings, V. (1986). The functions and effects of pornography: Sexual communications versus the feminist models in light of research findings. In J. Bryant and D. Zillmann (Eds.), *Perspectives on media effects* (pp. 83-108). Hillsdale, NJ: Lawrence Erlbaum Associates.
- Quinsey, V.L., Chaplin, T.C., & Upfold, D. (1984). Sexual arousal to nonsexual violence and sadomasochistic themes among rapists and non-sex offenders.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Vol. 52, pp. 651-657.
- Richert, T. (2002). Sex in advertising research: A review of content, effects, and functions of sexual information in consumer advertising. *Annual Review of Sex Research*, Vol. 13, pp. 241-272.
- Richmond, D., & Hartman, T. (1982), Sex appeals in advertising. *Journal of Advertising Research*, Vol. 22 No. 5, pp. 53-61.
- Steele, J. R. & Brown, J. D. (1995). Adolescent room culture: Studying media in the context of everyday life.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Vol. 24, pp. 551-576.
- Slator, M. D. (2003). Alienation, aggression, and sensation seeking as predictors

- of adolescent use of violent film, computer, and website content. *Journal of Communication, Vol. 53 No. 1*, 105-121.
- Taylor, I. D. (2005). Effects of visual and verbal sexual television content and perceived realism on attitudes and beliefs. *Journal of Sex Research, Vol. 42*, pp. 130-137.
- Zillmann, D. (2000). Influence of unrestrained access to erotica on adolescents' and young adults' dispositions toward sexuality. *Journal of Adolescent Health, Vol. 27 No. 2*, pp. 41-45.
- Zillmann, D. & Bryant, J. (1989). *Pornography: Research advances and policy considerations*. Hillsdale, NJ: Lawrence Erlbaum.
- Zillmann, D. & Bryant, J. (1982). Pornography, sexual callousness and the trivialization of rape. *Journal of Communication, Vol. 32 No. 3*, pp. 10-21.

ABSTRACT

TV Viewing Time Zones for Adolescents and Sexuality in Korean Network Televisions : Demographics, Relationships, and the Language of Actors*

Ha, Sung-Tae** · Lee, Jung-Gyo***

This study content-analyzed the frequency of sexual scenes and the actors' demographics, relationships, and use of languages on four primary Korean network channels during 2007. We found that two significant differences exist between sexual content in the programs before and after the end of TV viewing time zone for adolescents: first, in terms of the frequency of sexual references and, second, those contexts surrounding the observed sexual references. These differences imply that the legal regulation regarding the viewing time zone for adolescents is working quite efficiently. Thus, this finding provides empirical evidence supporting the argument for a possible extended enforcement of the viewing time zone for adolescents. Discussion regarding the social implications of these findings is included.

Key Words : TV viewing time zone for adolescents, media sexuality,
context for sexual expression

투고일 : 6월 15일, 심사일 : 7월 16일, 심사완료일 : 8월 7일

* This work was supported by a grant from the Kyung Hee University Post-Doctoral fellowship in 2009. (KHU-20090498)

** Research Professor, Communication Research Center, Kyung Hee University

*** Assistant Professor, School of Journalism and Communications, Kyung Hee University